
속도와 성과를 2배 올리는

「新산업정책2.0」 전략

- 첨단산업 초격차, 주력산업 대전환 -

2024. 2.



산업통상자원부

1 지난 2년간의 「新산업정책1.0」 추진 경과 및 성과

□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, 업종별 전략, 법령 정비 등 산업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는 「新산업정책1.0」을 추진

- ▲투자, ▲인력, ▲생산성, ▲기업성장, ▲글로벌, ▲신비즈니스 등 6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찾는 「산업대전환」 민간 제언
*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약 300일(22.11월~23.9월)간의 논의를 거쳐 민간 제언 제시
-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이상의 업종별·기능별 산업전략 수립

< 【참고】 지난 2년간 업종별·기능별 주요 산업전략 >

구분	주요 전략
업종별 (19)	첨단산업 ▶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(22.7), ▶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(22.11), ▶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(23.3), ▶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(23.4), ▶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전략(23.5), ▶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(23.5), ▶ 바이오경제2.0 추진방향(23.7), ▶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(23.12)
	주력산업 ▶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(22.9), ▶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(22.10), ▶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(22.12), ▶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(22.12), ▶ 철강산업 발전전략(23.2), ▶ K-조선산업 재도약 지원방안(23.5), ▶ 미래차 전환 및 수출지원 대책(23.5),
	기타산업 ▶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(22.10), ▶ K-뿌리산업 첨단화 전략(23.4), ▶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(23.4), ▶ 산업공급망 3050 전략(23.12),
기능별 (7)	▶ 실용형 新통상 전략(22.5), ▶ 산업기술 혁신전략(22.6), ▶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(22.11), ▶ 산업 AI 내재화 전략(23.1) ▶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(23.1), ▶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(23.2), ▶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(23.8)

-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, 「산업디지털전환법」, 「미래차부품산업법」, 「자율운행선박법」, 「첨단산업인재혁신법」 등 산업혁신 근거법령 마련

□ 이를 바탕으로, 우리 경제의 **투자·수출을 회복**하는 **소기의 성과 달성**

- ① '23년에는 20개월만에 '수출 플러스+무역수지 흑자'를 회복하였고, 총 327억불(신고기준)의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달성
- ② '24년 설비투자는 총 100조원의 계획 中 95% 이행이 예상되며,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674조원(~47년)의 대규모 투자계획 확정
- ③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피해 최소화, IRA 세부규정에 업계 의견 반영, 美·日·英·네 등과 반도체 협력 강화 등 통상 불확실성 제거

2 산업정책 여건

□ 거시 지표로 나타나는 2024년 우리 경제 전망은 비교적 양호

○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개선된 2% 초반의 성장이 예상

* 韓 경제성장률 전망('23→'24, %): (한은) 1.4 → 2.1, (IMF) 1.4 → 2.3, (OECD) 1.4 → 2.3

– IMF는 한국 경제가 美, 日 등 선진국보다 높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

* IMF '24년 경제성장률 전망(%): (韓) 2.3, (선진국) 1.5, (美) 2.1, (日) 0.9, (獨) 0.5

○ 수출과 투자가 성장의 핵심축, 소비·정부지출 확대는 제한적

– 작년 대비 수출은 7~9% 확대, 설비투자도 2~4% 증가 예상

* '24년 수출 증가율 전망(%): (한은) 9.3, (기재부) 8.5, (무역研) 7.9

'24년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(%): (한은) 4.1, (기재부) 3.0, (산업研) 2.1

– 다만, 체감 물가 부담, 정부 건전재정 기조는 당분간 지속

□ 그러나, 실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도 다수 존재

○ 양호한 설비투자 전망에도 불구하고,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 상존

– 고금리,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지연 우려

* LG경영연구소는 고금리, 불확실성 때문에 '24년 설비투자 감소(△0.3%) 예상

– 부동산PF, 가계·기업 부채 등 자금조달 관련 '약한 고리' 위기 증가

○ 자국우선주의, 공급망 재편 등 지경학적·지정학적 리스크 산재

–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지속

– 경제 블록화, 러·우 전쟁, 중동분쟁 등 공급망·에너지 불안 확대

□ 한편, 디지털·AI, 친환경 전환을 통한 新성장동력 창출도 지속 요구

○ 생성형 AI를 필두로 공정·제품·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 기대

* 시장조사기관 IDC는 '23~'27년간 생성형 AI 솔루션 시장이 연평균 73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○ EU CBAM, 美-EU GSSA 등 친환경 기반의 新무역장벽 확대

⇒ 현재 직면한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, 미래 新성장동력을 발굴 필요

3 「新산업정책2.0」 비전 및 목표

- ◇ 지난 2년간 산업대전환, 업종별 전략, 법령 정비 등 「新산업정책1.0」 추진
- ◇ 이제는 그간의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**민간 주도, 시장 기반의 경제성장을 확산**시키는 「新산업정책2.0」을 추진해야 할 시점
 - ↳ ① “**속도+성과**”를 핵심 가치로 투자·수출 회복을 넘어 **경제활력 회복을 도모**
 - ↳ ② **AI와 산업의 융합**으로 미래 **성장동력 창출**과 **잠재성장률 반등**을 실현

비전

산업 경쟁력 + 경제활력 회복

'24년
목표

- ▶ 10대 제조업 투자 110조원 + 외국인투자 350억불
- ▶ 사상 최대 수출 실적 7,000억불

추진 전략

현재

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「첨단산업 초격차」

- ✓첨단산업별 초격차 지원 ✓첨단투자 환경 개선
- ✓첨단 기술·인재 확보 ✓경제안보·공급망 강화

②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「주력산업 대전환」

- ✓업종별 디지털·그린 전략 ✓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
- ✓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

③ 경제영토를 넓히는 「수출 고도화」

- ✓수출 新시장·新품목 발굴 ✓수출기업 전방위 지원
- ✓정상외교 성과 창출

속도

+

성과

미래

④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「AI 시대의 新 산업정책」

- ✓공정·제품·서비스 AI 혁신 ✓「AI 자율 제조」 착수

4 추진 전략

1 첨단산업 초격차

1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

① 반도체: 반도체 생태계 불균형 → 팹리스·소부장 등 '약한고리' 보강

-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지원을 강화*하고, 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를 위한 「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 수립('24.上)

* (시제품) '24년 50억원 지원(전년대비 2배↑), (성능검증) 검증지원센터 신규예산 반영('24년 30억원)

- 新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R&D 착수('24년 140억원),
▲첨단 패키징(5,569억원), ▲미니팹(9,060억원) 등 대규모 R&D 기획

② 이차전지: 공급망·시장 불확실성↑ → 공급망 안정화 + 차세대 역량 확보

-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▲민간 광물확보 프로젝트 지속 발굴,
▲광물 저소비형 기술개발*, ▲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 지원

* LFP 배터리, 실리콘 음극재 등 기술 개발로 핵심광물 의존도를 완화

- 안전↑ 전고체, 무게↓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본격 개발('24년 61.4억원)

③ 디스플레이: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→ OLED 확산 및 차세대 초격차 창출

- OLED 양산·R&D 투자를 지원하고, 新 품팩터 디스플레이* 실증 확대

* (투명) 박물관·지하철 대상 시범설치(여의도역, '24.上) / (스트레처블) 소방복 부착형 등

- '24년 차세대 무기발광(마이크로LED) R&D 본격 개시('24년 202억원)

④ 바이오: 글로벌 제조능력 경쟁 심화 → 공정·소부장 고도화로 제조역량 강화

-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R&D 기획(5,000억원, 예타신청 예정)

-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*」 마련('24.上)

* 바이오 핵심원료, 부자재, 장비 등 60개 핵심품목의 단계적 기술개발 로드맵

② 현장애로 해소·밀착 지원으로 첨단산업 투자환경 개선

① 첨단산업 중심 110조원 설비투자 및 20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

- '24년 첨단산업 중심의 10대 업종* 설비투자 계획은 총 110조원 ('23년 대비 10%↑) ⇒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애로 청취·해소
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자동차, 조선, 기계·로봇, 油化·정유, 철강, 섬유

- 업종별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밀착 지원

▶ 프로젝트: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,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

▶ 동향점검: 매월 담당관 회의(실장) → 매분기 간담회(차관) → 산업투자전략회의(장관)

② 674조원(~'47년)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조성

- '24.상반기 中 「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*」 마련

* 주요내용: ①기반시설 구축(전력·용수 등), ②R&D·인력 등 생태계 조성, ③규제개선 등

- 국가첨단전략산업특, 범부처 지원협의체에서 기반시설 설치 상황 점검

* (첨단위) 총리 주재, 장관급 참여, (지원협의체) 산업부1차관 주재, 정부·공공기관 참여

< 【참고】 기존 특화단지 기반시설 주요 지원내용 >

구분	지역	지원내용
반도체	용인·평택	▶ '36년까지 전력 10GW 확보(LNG발전 3GW + 장거리 송전선로 7GW) ▶ 용인 국가산단 광역교통망 보강 ▶ 하수재이용수,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하여 용수 확보
	구미	▶ '31년까지 전력 220MW 확보(변전소 추가설치 + 선로용량 증대)
이차전지	포항	▶ '28년까지 전력 864MW 확보(변전소 조기건설 + 송전선로 보강) ▶ 용수관로 구축(정부, 154억원) + 용수 공급 2차 사업 추진
	울산	▶ 공업용수도 개량을 통해 용수 추가 확보
	오창	▶ 기존 수도시설 여유량을 활용하여 용수 추가공급
	새만금	▶ '31년까지 전력 861MW 확보(변전소 조기건설)
디스플레이	천안·아산	▶ '25년까지 전력 1.1GW 확보(변전소 건설 + 송전선로 보강)

-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·허가 타임아웃제를 활용하고, 지자체간 기업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'상생벨트' 도입 추진

▶ 타임아웃제: 인·허가 지연시 신청 → 첨단위 의결 후 60일內 미처리시 처리 간주

▶ 상생벨트: 지자체간 기업투자로 발생한 이익 공유 → 신속한 행정처리 유인 제공

-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(2.29일까지 공고 완료, 상반기 中 지정)

③ 세제, 자금, 규제 등 투자 촉진환경 조성

-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(~'24.12월)하고,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 추진
- 정책금융 102조원+a 공급으로 자금조달 지원('23년 대비 11%↑, 금융위)
- 첨단산업 규제 지속 혁파를 위한 3대 규제혁신 제도를 운영하고, 반기마다 '첨단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' 마련(국가첨단전략산업특 상정)

- ① 기존 규제 해소: 첨단산업 규제 발굴 → 45일 내 검토결과를 첨단위에 제출
- ② 신규 규제 도입시 첨단산업 영향을 사전 분석하는 '첨단산업영향평가' 추진
- ③ 첨단산업 규제지수: 기준년도(=100) 대비 규제 강화(+) or 완화(-) 여부를 지수화 → 매년 경제단체에서 발표

③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인 첨단 기술·인재 확보

① 산업기술 R&D에 총 5.1조원 투입, 선택과 집중으로 R&D 성과 제고

- 첨단산업(1.1조원), 소부장(1.7조원), 국제협력(0.3조원) 등 3대 분야에 '24년 산업부 전체 R&D 예산의 60%를 집중 지원
- 11대 분야*,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민·관이 함께 총 2조원 지원
- 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미래모빌리티, 핵심소재, 지능형로봇, 차세대원자력 등

② 기업 주도형, 개방형으로 산업기술 R&D 패러다임 전환

- 기업 주도의 성과창출형 시스템으로 산업기술 R&D 전면 개편하고,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(연내 지정) 확보도 지원

- ▶ [기획] 정부는 개략적인 품목만 지정·공고 → 연구자가 품목내 과제 기획·신청
- ▶ [수행] 주관기업만 선정 → 주관기업에 컨소시엄 구성, 연구개발비 배분 등 권한 부여
- ▶ [관리] 산업기술 PD의 역할을 과제기획에서 선정·수행·평가 등 지원역할로 변경

- 모든 산업기술 R&D를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,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180개의 초격차 급소기술·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

* MIT, 스탠포드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 구축('24) / '24~'30년 약 1.9조원 투입

③ 국내·외 인재 확보를 통해 자유로운 인력 수급 지원

- 산업계+교육계 ‘Two-Track 협력’을 통한 국내 첨단인재 육성

- ▶ [산업계] 업종별 아카데미 지원 강화, 사내대학(원) 및 산업계 공통기술 전문교육 확산
- ▶ [교육계]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13곳, 특성화대학원 8곳 추가 지정, 국내 이공계 청년 300명의 미국 대학·첨단산업 교류 지원

- 필요한 인력을 적기 공급하는 ‘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’ 확대

* (지원내용) 지방투자 예정·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사전 모집 및 교육 지원
(지원규모) '24년 15억원 → 10개 기업, 총 150명 교육

- 첨단인재 유치를 위한 「글로벌 인재 확보전략*」 수립

* (예) 해외고급인재 비자제도·정주지원 패키지 마련, 입국~정착 원스톱 지원 등

④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기술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확립

① 공급망 안정품목 R&D 확대 및 수요기업 투자 연계 소부장 자립 지원

-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R&D 4배 이상 확대('23 176 → '24 739억원)

- 국내 소부장 기업이 소자기업의 ‘공정기술 개발 로드맵’에 따른 소부장 R&D 기획시 지원하는 방안 추진

* 소자기업 로드맵 기반 소부장 기업 개발계획 제출 → R&D양산 지원 → 소자기업 양산 투입

② 외국인투자 350억불 유치('23년 327억불) 및 유턴 활성화로 공급망 보완

- 국내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100대 핵심기업*을 집중 유치하고,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 4배 확대('23 500 → '24 2,000억원)

* (예)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고려하여 핵심 유치기업 설정

- 국가전략기술·국가첨단전략기술 유턴 보조금 지원한도·요건 개선

- ▶ 지원한도(억원): (現) 수도권 150, 비수도권 300 → (改) 수도권 200, 비수도권 400
- ▶ 인정요건: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

③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강화

- 「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으로 기술보호를 강화(차별대상·벌금↑ 등)하고,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('24.5월)

2 주력산업 대전환

1 주력산업 업종별 디지털·그린 전환으로 新부가가치 창출

- ① **자동차: 전기차 전환 흐름 지속 → 수출·투자 촉진 및 부품 역량 강화**
 - 자동차 산업 수출 1,000억불 달성을 위해 ▲인나·필리핀 등 新시장 개척, ▲부품기업 GVC 진입 확대, ▲공급망통상 리스크 관리 등 지원
 - * 산업협력 ODA 확대, 글로벌 부품 전시회·상담회 참여 지원, 통상·환경규제 동향 확인 등
 - 규제혁신, 투자 지원으로 '30년 전기차 생산능력 5배 확충(35→150만대)
- ② **조선: 환경규제+경쟁국 추격 → 미래선박 기술 선점 경쟁 확대**
 - 디지털·그린 R&D를 위한 「K-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」 마련('24.上)
 - * '23.12월 산·학·연 워킹그룹 구성 → 기술 진단, 이종업종 협업, 국제공동 R&D 등 논의
 - 기술 선점을 위한 「^{가칭}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법*」 발의 추진('24.下)
 - * 주요내용(잠정): 기술혁신 핵심기업 규제특례, 차세대 조선산업혁신인재 양성 등
- ③ **철강: 글로벌 탄소장벽 → 탄소경쟁력 제고 및 新 철강재 개발**
 - 친환경 철자원 대책*을 마련하고, 탄소중립 기술(수소환원제철 등) 지원
 - * 「철자원 산업육성 방안」: 철스크랩 R&D·설비 지원, 거래 효율화·투명화 등
 - 수요산업 그린전환 대응 新 철강재 기술개발* 및 민간투자 촉진
 - * (예) 전기차 모터소재, LNG선박 탱크용 고망간강, 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등
- ④ **석유화학: 글로벌 공급 과잉+환경규제 → 고부가제품 및 친환경 전환**
 -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제품 개발, 친환경 전환 R&D* 본격 추진
 - * 석유화학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: (총사업비) 1,858억원, (사업기간) '23~'30년
 - 민간의 대규모 투자*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'투자지원 TF' 가동
 - * (S-oil 사신프로젝트) 9조원, '23~'26, (SK ARC 클러스터) 1.8조원, '23~'25

⑤ 로봇: 지능화 + 新비즈니스 수요 ↑ →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

- 로봇 8대 핵심기술* 확보를 위한 「중·장기 기술 로드맵」 마련('24.上)
- * (5대 HW) 감속기, 서보모터, 제어기, 센서, 그립퍼, (3대 SW) 이동, 조작, 사람-로봇 상호작용
- 로봇산업 전문기업 육성, 新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* 추진
- * 「첨단 로봇 규제혁신 방안」('23.3월, 51개) → 39개 과제 완료 목표('24년 중)

⑥ 섬유: 글로벌 환경규제 + 디지털화 → 친환경·디지털 전환 촉진

- 친환경·저탄소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최대 40%(기업당 30억원) 지원
- 소규모 공장을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협업 생산이 가능한 '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'를 보급('24년 15억원)하는 등 디지털 확산 지원

②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튼튼한 지원기반 마련

① 민·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

- 경쟁국 추격, 공급망 불안, 숙련인력 부족 등 제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민·관 공동 「산업 디지털전환 5대 선도사업」 착수('24~'28년)
- 산업 AI 얼라이언스(수요·공급社 참여)를 통해 2기 선도사업 선정('24.下)

② 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 고도화 및 수출 산업화

- AI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AI 표준모델을 구축하고, 국내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③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탄소에너지 기반 확대로 친환경 전환 지원

①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

- 국내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(안) 마련 및 국제규범화 추진
-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신속 재개,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('24.上)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지원

② 기업의 원활한 투자·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·시스템 구축

- 에너지공급, 탄소중립 등이 조화된 전원믹스 구현(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, '24.上)

3

수출 고도화

1 7,0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해 수출 시장·품목 전략적 다변화

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품목 및 타겟시장 선정

- 공급망, 디지털, 탄소중립, 인구구조 등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를 기준으로 매년 품목 추가·변경

* (예) ▲ 공급망 - AI반도체 - 북미·유럽, ▲ 디지털 - 투명OLED - 일본·아세안,
▲ 탄소중립 - 친환경선박 - 유럽·중동, ▲ 인구구조 - 바이오시밀러 - 중국·인도 등

② 전세계 GDP의 85→90%로 우리 기업의 경제영토 확대

- FTA·EPA 네트워크 다변화·고도화를 위해 협상 타결 및 개선 추진
- * (EPA 타결 추진) 몽골, 조지아, (FTA 개선 협상) 영국, 인도, 칠레 등
- 아시아, 아프리카, 동유럽, 중남미 등과 EPA 본격 개시

2 수출 확대를 이끌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

① 금융·마케팅·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

- '24년 총 250조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, 수출 중소·중견 단기 보험·신용보증 50% 할인, 대규모 프로젝트 보험 한도 상향* 지원
- * 방산, 원전, 플랜트 등 대규모·중장기 프로젝트 수출보험 한도: '2317.8 → '2420조원
- 수출 바우처 2배 확대(169→311억원), 마케팅 예산 2/3 상반기 투입
- 친환경·고기술* 新분야, 중남미 등 新시장의 상호인정 품목 확대
- * 전기차 충전기·생분해 플라스틱 등 추가 / 방폭 시험장비 구축('24년)

②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수출 총력 지원

- 부처 협업과제 발굴, 부처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원스톱 대응
- * (예) 화장품·의료기기(복지부·산업부·식약처), 농수산식품(농식품부·해수부·산업부)

3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다져진 수출 기반의 성과 본격 창출

- 민·관 '세일즈 외교 지원단'을 신설하여 기획·홍보를 강화하고, 경제외교 포털(코트라)을 개편하여 정상외교 성과관리 플랫폼화
- * 산업부·대한상의·무협·한경협·코트라 참여 → 사절단 구성, MOU, 성과 이행 등 관리

산업정책의 “속도+성과” 향상 방안

◇ 「新산업정책2.0」의 핵심 가치가 “속도+성과”인 만큼, **민·관 소통 확대** 및 **신속한 정책 추진**을 통해 **체감 성과를 높이는 데** 정책 역량 집중

⇒ 이를 통해,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‘**티핑포인트**’를 실현

① 투자 애로, 수출 및 업종별 현안 해소를 위해 **민·관 소통 확대**

– 투자는 “현장중심+문제해결” 플랫폼인 「산업투자전략회의」에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

<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요 >

- ▶ 회의성격: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 정례 회의
- ▶ 참석자: 산업부 장관, 대표기업, 경제단체, 연구기관 등
- ▶ 논의주제: ①투자 동향·애로 청취, ②경제·산업 현안, ③산업정책방향 등 논의
- ▶ 개최계획: 설비투자, R&D투자, 외국인투자 각각에 대해 상·하반기 개최

– 수출 및 업종별 현안은 「업종별 수출·현안 전략회의」, 「수출확대 대책회의」를 통해 산업부 장관이 업계와 정기적으로 소통·대응

②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**신속히 검토하여 해결방안 도출**

– 각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는 산업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하에 신속하게 검토 및 대응

–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▲수출전략회의(대통령), ▲국가첨단 전략산업위원회(총리), ▲비상경제장관회의(경제부총리) 등 정부 내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칸막이 없이 논의·해소

③ 검토 상황·결과는 **수시로 산업계와 공유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**

– 기업의 개별적인 건의사항은 검토 상황, 해결 내용 등을 즉시 해당 기업에 공유

– 산업정책 추진 동향 및 성과는 정례적인 브리핑을 통해 대외에 정책 효과를 전파하고, 정부-민간의 소통을 활성화

4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

- ◇ 인공지능(AI)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'물과 공기'처럼 스며들 핵심 트렌드
- ◇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산업 전반에 AI 융합을 시도해 나가야 할 시점

1 AI와 산업 융합을 테마로 하는 「AI 시대의 新 산업정책」 수립

① 산업 파급력이 큰 AI는 우리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분야

- 우리 산업정책은 시대정신에 따라 70~80년대입지·금융 → 90년대 R&D → 00년대 사람으로 변화 ⇒ 이제는 AI가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
- AI는 디지털 전환 2.0으로서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품·서비스 등 End Product는 물론 가치사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

② 민·관 합동으로 연내 「AI 시대의 新 산업정책」 수립·발표

- 국내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'AI 산업정책위원회' (공동위원장: 산업부장관+민간전문가)와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* 운영
- * (간사) 공학한림원 or 산업연구원, (분과) AI 융합업종 + 기능(자율제조, R&D, 제도, 디자인 등)

2 생산성 혁신을 위한 「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」 마련('24.上)

① 제조공정 및 생산시스템 혁신을 위한 「자율 제조 변혁지도」 수립

- 업종별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지능화·자율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계·장비·로봇과 AI의 융합 추진
- 지역별 1~2개 업종 대상 시범프로젝트를 추진('24.上)하고 국내 제조업 특성에 맞는 기계·장비 도입, AI·SW 솔루션 개발 등 추진

② 핵심기술 분석 및 기술 개발을 위한 「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」 수립

- ▲ AI, ▲ SW, ▲ 로봇·기계·장비 등 3대 분야 핵심기술* 선별
- * AI 인지·제어, SW 기술, AI 자율 제조데이터 표준,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
- 「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」에 따라 예타 사업 기획('24.下)

참고

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

구분	업종	프로젝트명	
1	반도체	▶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(평택·용인)	'22~'47
2		▶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클러스터 조성(용인)	'22~'46
3	자동차	▶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(울산·화성)	'23~'25
4		▶ 전기차 전용공장 전환(광명)	'23~'24
5	디스플레이	▶ 세계 최초 8.6세대 IT용 OLED 제조시설 구축(아산)	'23~'26
6		▶ 6세대 IT용 OLED 제조시설 구축(파주)	'21~'24
7	이차전지	▶ 파우치형 배터리 대규모 양산시설 구축(서산)	'23~'25
8		▶ 배터리 핵심소재(양극재·음극재) 생산기지 구축(포항)	'23~'27
9	조선	▶ 초일류 스마트조선소 구축(울산·영암)	'22~'26
10		▶ 차세대 친환경·스마트선박 생산설비 구축(거제)	'22~'26
11	바이오	▶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CMO 생산능력 확보(송도)	'22~'32
12		▶ 바이오시밀러 연구·생산 원스톱센터 건설(송도)	'22~'30
13	기계·로봇	▶ 건설기계 스마트 캠퍼스 조성(울산)	'22~'25
14		▶ 발전용 초대형 엔진 생산라인 신·증설(군산)	'22~'25
15		▶ 자동화셀 기반 협동로봇 제조시설 증설(군산)	'23~'26
16	철강	▶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(광양)	'22~'24
17		▶ 탄소중립 대응 발전설비 확충(당진)	'24~'28
18	석유화학	▶ 샹한 프로젝트(울산)	'22~'26
19		▶ ARC(Advanced Recycling Cluster) 프로젝트(울산)	'22~'26
20	섬유	▶ 국산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(전주)	'11~'28